

우도 신궁: 오치치이와

바위굴 내부의 벽면은 일부가 여성의 가슴처럼 돌출되어 있다고 하여 ‘오치치이와(가슴 바위)’라고 부릅니다. ‘오치치이와’는 바위 끝에서 천천히 흘러나오는 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으며 옛날부터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가 훗날 우도 신사의 주요 제신으로 모셔지는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를 낳은 후 고향인 바다로 돌아가 버리면서 우가야후키아에즈는 홀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기고 간 ‘오치치이와’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자라, 훗날 전설 속 일본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치치이와를 만지면 순산, 아이의 건강, 어머니의 건강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